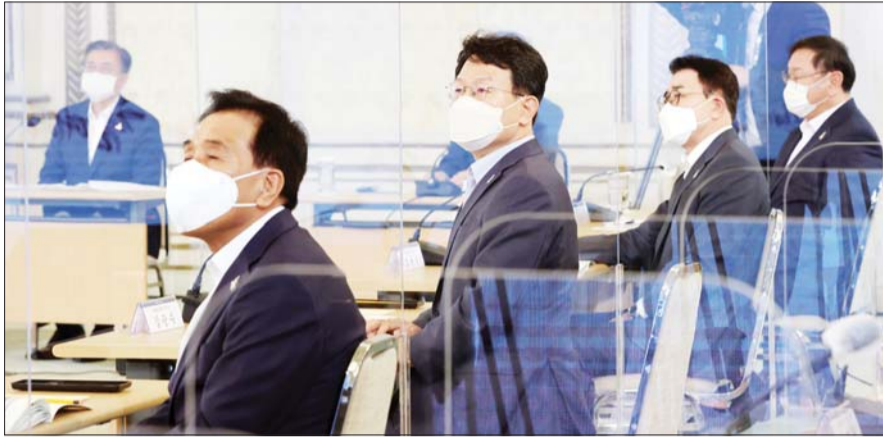


靑에 모인 금융지주 회장 “뉴딜에 70조” 통 큰 지원

신한 자체 민간 뉴딜펀드 조성
KB 뉴딜·혁신금융협의회 구성
하나 혁신금융 포함 60조 지원
우리 조기착수 가능사업 추진
NH농협 전 계열사 역량 결집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오른쪽 두번째부터), 김광수 NH농협금융지주 회장, 김지완 BNK금융지주 회장 등 10대 금융지주 회장들이 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금융권 참여방안에 대한 비대면 영상보고를 보고 있다. /뉴스1

5대 금융지주가 ‘한국판 뉴딜’에 70조원을 투입한다.

신한·KB·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금융지주사는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 참석해 이 같은 계획을 내놨다.

이날 회의에는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과 윤종규 KB금융 회장, 김광수 NH농협금융 회장,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등이 직접 참석했고,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방역 상황에 따라 온라인으로 참여했다.

신한금융은 오는 2023년까지 혁신대출 16조원, 혁신투자 1조원, 녹색금융 9조원 등 총 26조원의 자금을 뉴딜사업에 공급할 계획이다. 신한금융은 한국

판 뉴딜 지원을 위해 지난 5월에 ‘신한 네오(NEO)프로젝트’를 금융권 최초로 출범시킨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 금융지주사를 대표해 한국판 뉴딜에 대한 금융 지원 방안을 발표한 신한금융 박성현 상무는 “K-뉴딜을 위한 자금은 먼저 금융기관이 보유한 자체 자금을 대출이나 투자의 형태로 공급하는 직접 공급과 고객자금을 펀드 형태로 만들어 공급하는 간접 공급, 그리고 스타트업 기업의 발굴과 육

성을 통해 지원하는 방식이 있다”며 “준비 중인 정책형 펀드와 그 결을 같이해서 자체적으로 민간 뉴딜펀드를 조성해서 뉴딜사업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KB금융은 한국판 뉴딜 사업에 10조원을 지원한다. 기존 혁신금융 지원이 66조원 규모임을 감안하면 총 76조원 규모의 금융 지원이 이뤄진다.

KB금융 윤 회장은 “정부의 K-뉴딜 사업은 건전한 투자 유도를 통한 국민의 자산 성장과 함께 뉴노멀 시대에 활

로를 찾기 어려웠던 금융기관에도 의미 있는 사업기회가 될 것”이라며 “그룹 내에 주요 계열사가 참여하는 ‘뉴딜·혁신금융협의회’를 구성해 향후 5년간 약 10조원의 투자 계획을 수립했으며, 차근차근 실행 중에 있다”고 말했다.

KB금융 ESG 경영을 적극 추진하는 동시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등 인프라 분야에서도 적극적인 사업 발굴 및 금융 지원을 통해 국가 인프라 구축에 나서고 있다. 현재 20조원 수준인 ESG 상품·투자·대출을 2030년에는 총 50조원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KB 그린 웨이(Green Way) 2030’ 계획을 수립해 추진 중이다.

하나금융은 기존 혁신금융지원 50조원에 추가해 한국판 뉴딜 사업 금융 지원을 위해 ‘디지털 뉴딜 부문 1조4000억원’, ‘그린뉴딜부문 8조원’ 등 총 10조원의 신규자금을 지원한다.

또 주력 계열사인 하나은행의 여신 지원과 함께 하나금융투자, 하나대체투자 자산운용, 하나벤처스 등 계열사를 통해 뉴딜 관련 펀드를 조성하는 등 직간접 투자에도 금융지원 역량을 집중한다.

우리금융 역시 한국판 뉴딜 사업에 향후 5년간 총 10조원의 자금지원에 나선다. 우리금융 손 회장은 “한국판 뉴딜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이끌 로드맵인 만큼 이를 적극 지원하는 과정에서 그룹의 신성장 동력도 발굴할 수 있다”며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 등 주요 사업별로 마련한 지원책들을 연내 조기 착수가 가능한 사업부터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NH농협금융은 2025년까지 대출과 투자를 통해 총 13조8000억원 규모를 지원한다. 은행과 증권·자산운용 등 비은행 자회사를 아우르는 농협금융 계열사의 역량을 결집해 추진할 방침이다. 세부적으로는 ▲스타트업 육성 및 농업분야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등 디지털 뉴딜 분야 1조2000억원 ▲농촌 태양광사업 및 신재생에너지 사업, 친환경 스마트팜 대출 확대 등 그린 뉴딜 분야 12조원 ▲정보취약계층 디지털기 보급 등 안전망 강화 분야 6000억원 등이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행사 현장과 쌍극음을 연결한 모습.



홀로그램으로 모습을 드러낸 박일평 사장.

첨단기술로 선보이는 ‘LG의 집콕생활’

LG전자 ‘IFA2020’ 개막식 개최
박일평 사장, 홀로그램으로 등장
 ‘안심·편리·재미’ 등 가치 제시
 가전에 IT기술 접목 ‘쌍극음’ 공개

LG전자가 집에서 즐겁게 사는 방법을 소개했다.

LG전자는 3일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IFA2020’ 개막식에서 ‘집에서 좋은 삶이 시작됩니다’는 주제로 프레스 컨퍼런스를 열었다. LG전자 글로벌 유튜브 채널로도 실시간 생중계했다.

시작부터 첨단 기술이 도입됐다. 박일평 사장이 무대에 홀로그램으로 등장한 것. 코로나19가 앞당긴 뉴노멀 시대의 변화된 생활을 조망하며 집에서 ‘안심’, ‘편리’, ‘재미’ 등 3가지 가치를 극대화해 고객에게 ‘좋은 삶’을 제공한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박 사장은 “코로나19를 마주하고 있는 우리는 집에 대한 새로운 잠재력을 확인하고 변화해야 하는 상황에 있다”며 “라이프스타일 이노베이터로서 혁신을 선도하는 가운데 고객들의 안심하고 편리하고 재미있는 ‘좋은 삶’을 위해 끊임없는 변화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LG전자 트루 스텝 가전은 건강한 삶을 위한 방법으로 제시됐다. 스타일러, 건조기, 식기세척기 등으로, 살균과 탈취에 효과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올레드 TV는 집에서 실감나는 화면을 볼 수 있다는 점으로 부각됐다. 장르에 따라 최적의 화면을 제공하는 ‘돌비 비전 IQ’와 색감과 분위기를 살려주는 ‘필름메이커모드’ 등 기능도 다뤘다.

LG쌍극음의 진화도 내세웠다. 지난해부터 시작한 프로젝트브 서비스가 핵심이다. 제품 작동상태를 분석해 예상 고장을 미리 대처할 수 있게 해주며, 1년여간 미국에서 서비스한 후 한국과 다른 국가들로 확대할 준비를 하고 있다.

미래 기술도 나왔다. LG클로이 로봇이 주인공이다. 지난 7월 출시된 클로이 서브봇을 시작으로, 로봇사업을 꾸준히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원격 건강 관리 기술 개발 방침도 공개했다.

박 사장은 “오픈소스 로봇 운영체제(ROS2)와 호환되는 LG 클로이 플랫폼을 기반으로 LG전자 로봇이 동작하게 할 것”이라며 “최근 서울대학교병원과

함께 만성질환자의 상태를 관리하는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쌍극음 실물도 보였다. LG전자 BS 사업본부 유럽사업담당 김경호 부사장이 연단에 올라 소개했다. 최신 가전 제품과 IT 기술이 조화를 이루며 고객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삶을 누리도록 해주기 위해 개발됐다.

쌍극음은 경기도 판교신도시에 조성됐다. 차별화된 에너지 솔루션과 스마트홈 통합 솔루션을 구축했다. 행사 중 박일평 사장이 지구 반대편에 있는 쌍극음과 실시간으로 연결해 ‘LG 쌍극음 컨시어지’로 상태를 확인했다.

박 사장은 “쌍극음과 쌍극음 플랫폼으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이러한 LG 쌍극음 플랫폼을 통해 새로운 서비스와 솔루션, 비즈니스 모델 등을 창출해 변화를 주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LG전자는 쌍극음과 관련한 영상도 글로벌 유튜브 채널에 공개했다. 가수 헨리가 집들이를 하는 것처럼 투어를 하고, 쌍극음에서 사는 가족들 모습을 그렸다. /김재용 기자 juk@

지난달 외환보유액 4189억弗… 또 사상 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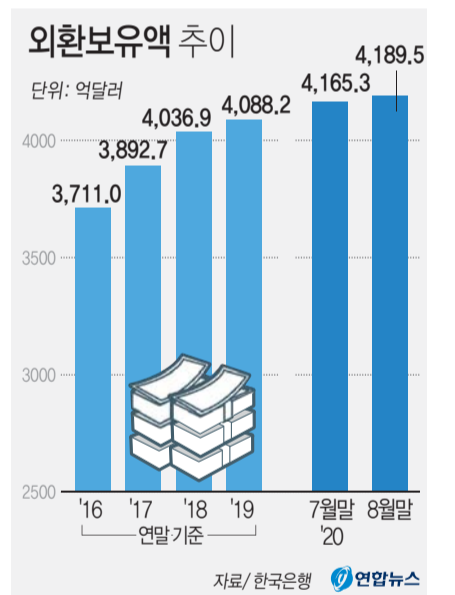
유가증권 3827억달러 91.4%

지난달 외환보유액이 늘면서 또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8월 말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4189억5000만 달러로 전월말 대비 24억2000만 달러가 늘었다.

한은 관계자는 “외화자산 운용수익과 미달러화 약세에 따른 기타통화표시 외화자산의 달러화 환산액 증가 등에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외환보유액은 유가증권이 3827억9000만 달러로 91.4%를 차지했고 ▲예치금 238억2000만 달러(5.7%) ▲금 47억9000만 달러(1.1%) ▲IMF포지션 44억 달러(1.1%) ▲SDR 31억5000만 달러(0.8%) 등으로 구성됐다.



지난 7월 말 기준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 규모는 세계 9위 수준이다.

/안상미 기자

일시휴직자 이례적 급증에 고용회복 부담

2분기 일시휴직자 73만명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일시휴직자가 이례적으로 급증하면서 향후 고용회복에 부담이 될 것으로 예측됐다.

3일 한국은행 조사국 조사총괄팀 박창현 과장의 ‘일시휴직자 현황 및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일시휴직자는 올해 1분기와 2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6만명, 73만명 급증했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가 발생한 지난 1998년 3분기 12만명 증가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1분기 7만명을 모두 크게 웃돈다.

박 과장은 “과거 위기시마다 일시휴직이 단기적으로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

지만 이번 증가폭은 이례적으로 큰 수준”이라며 “외환위기시에는 기업도산이 대량해고로 이어지면서 일시휴직자보다는 실업자가 대거 양산됐지만 이번에는 감염병에 따른 조업중단 등으로 실업보다는 일시휴직이 크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코로나19로 대면접촉이 많은 일자리가 타격을 받았다.

일시휴직자는 부문별로는 숙박음식과 교육 서비스업, 판매·서비스직 등을 중심으로 크게 늘었고, 성별·연령별로는 여성과 청년·고령층에서 많이 발생했다. 종사상지위별로는 임시직,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이 많았다. 사업부진·조업중단에 따른 일시휴직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안상미 기자